

클래식 명곡산책 - - 리코더

오늘날 정규악기로 사용되고 있는 악기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악기는 바로 리코더입니다. 리코더는 나무로 만든 관에 구멍을 뚫고, 취구에 바람의 압력이 높아지도록 나무 블록을 끼워 만든,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악기죠. 이 악기는 블록을 넣었다는 의미로 독일에서는 ‘블록플로테’(Blockflöte)라고 불리고, 프랑스에서는 취구의 모양이 새의 부리와 닮았다고 하여 ‘플뤼트 아 베크’(flûte à bec)라고 하죠.

그런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두 말에서 공통적으로 ‘플루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플루트’라고 하면 가로로 부는 긴 목관악기를 말하지만, 18세기 중엽 바로크 이전에는 리코더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어로 ‘플라우토’(flauto)라고 하면 리코더라는 의미가 더 강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가로로 연주하는 플루트를 ‘플라우토 트라베르소’(flauto traverso : 가로로 연주하는 플루트라는 뜻)라고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리코더는 음량이 작고 음역이 좁아 18세기 후반 이후 관현악단의 확대와 다른 악기들의 개량에 따라가지 못해 순식간에 도태되고 말았지만, 20세기 초부터 복고바람이 불면서 현재는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의 우수한 음악대학에 리코더 전공이 있을 정도로 전문 악기로서 이미 그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우리에게 리코더는 장난감 악기로 혹은 초등학교 교재 정도로 생각되고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을 말끔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리코더의 종류 /
출처 : recorderclass.wordpress.com





그림 2. 안토니오 비발디 /
출처 : www.magnoliabox.com



그림 3.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
출처 : en.wikipedia.org

✧ 안토니오 비발디 Antonio Vivaldi (1678~1741)

리코더 협주곡 '밤' Concerto per flauto 'La Notte,' RV439 (1728년 출판)

베네치아의 '빨간 머리 신부' 비발디는 어려서부터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웠습니다. 1693년에 수도사가 되고 10년 후에 사제로 서품되었는데, 이때부터 1740년까지 베네치아 구빈원 부속 여자음악학교 바이올린 교사로 근무했죠. 우리가 접하는 비발디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작곡된 곡들입니다.

비발디는 네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구성된 '사계'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500곡이 넘는 협주곡을 포함하여 무려 8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빠른 작곡 속도 덕택이었죠. 심지어 단순히 악보를 옮겨 적는 사보가보다도 더 빨리 곡을 썼다고 하니, 그 속도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비발디의 곡들은 서로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두고 스트라빈스키는 1958년에 "같은 곡을 수없이 많이 썼던 바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발디의 작품 목록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협주곡으로,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전형적인 세 악장으로 구성되어 표준적인 협주곡 양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 중 리코더가 독주악기로 등장하는 곡은 열여덟 곡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 또한 이러한 특징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개의 플루트 협주곡집, Op. 10'으로, 1728년에 암스테르담의 르 센(Le Cène)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때의 비발디는 이미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여러 악보들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되고 있었습니다.

이 악보집의 표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베네치아 시의 피오 구빈원의 음악감독, 헤세-다름슈타트 지역의 필립 공의 카펠마이스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필립 공은 1714년부터 1735년까지 이탈리아의 만투아를 통치한 인물로, 비발디는 1718년부터 1720년까지 약 3년간 필립 공의 궁에서 일했죠. 이 악보를 출판했을 때는 이미 그 곳을 떠나고 한참 후였음에도 이러한 직책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도 만투아 궁정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발디의 여러 협주곡들은 '사계'와 같이 종종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플루트 협주곡집, Op. 10'에도 협주곡 1번은 '바다의 폭풍', 2번은 '밤', 3번은 '오색방울새' 등 표제를 넣어 특정한 대상을 표현했죠. 여기서는 두 번째 협주곡 '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악장은 유니즌(unison : 모든 파트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합니다. 밤의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후반부에서 리코더가 길게 지속하는 부분은 끝없이 펼쳐진 적막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러다 곧 폭풍을 연상케 하는 상향하는 빠른 패시지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잠'이라는 부제를 가진 느린 악장에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고요한 화음과 지극히 느린 선율이 연주된 후, 마지막 빠른 악장은 빠르고 다이내믹한 연주로 곡을 마무리합니다.



✧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Georg Philip Telemann (1681~1767)

트리오 소나타 라단조 Trio Sonata in d minor, TWV42:d10 (1725)

마그데부르크 출신의 텔레만은 18세기 독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작곡가이자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라이프치히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 정통했죠. 그는 독일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양식을 잘 알고 있었으며, 폴란드의 에르드만 2세의 궁정 카펠마이스터(음악감독)를 맡으면서 그 지역의 음악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그의 작품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신

선하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크 양식을 넘어 고전음악을 예견하는 진보적인 양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바흐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소개하는 작품은 1725년 함부르크에서 작곡된 <리코더와 바이올린, 통주저음을 위한 삼중주>로, 리코더와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연주하며 통주저음은 반주를 맡습니다. ('통주저음'이란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저음 및 반주 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첼발로, 첼로, 류트, 바순 등 연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주됩니다.) 전체 구성은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전형적인 '교회 소나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1악장은 거친 비바람을 피해 달려가는 모습과 같이 빠르고 급하게 연주되고, 2악장은 애수가 깃들어 있는 느린 선율이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3악장은 빠른 민속풍의 춤곡이며, 마지막 4악장은 보다 빠른 속도로 두 악기가 선율을 주고받으며 마무리하죠. 18세기 독일의 슈퍼스타가 만든 독특한 음색과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통주저음의 생기 있는 리듬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림 4. 요한 프리드리히 파슈 /
출처 : www.jimstockigtinfo.com

❖ 요한 프리드리히 파슈 Johann Friedrich Fasch (1688~1758)

리코더 협주곡 바장조 Konzert in F-dur

요한 프리드리히 파슈는 부텔슈테트에서 태어나 바이센펠스에서 소년합창단원이었으며,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요한 쿠나우로부터 공부하고 텔레만, 바흐와 함께 기악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을 창단하는 등 주요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1714년에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로이트와 그라이츠에서 활동하면서 다름슈타트에서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로부터 작곡을 공부하고, 1722년에 체르프스트(Zerbst)에서 카펠마이스터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커리어에서 보듯이 그는 생전에 최고의 명성을 얻었으며, 1983년부터는 그가 생을 마감한 체르프스트에서 격년으로 파슈음악제가 열리고 있을 정도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많은 고음악 연주자들의 레퍼토리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지만, <리코더 협주곡 F장조>만은 예외였습니다. 18세기에 작성된 파슈의 작품목록에는 이 곡이 기록되어있지만 악보가 전해지지 않았던 까닭이었죠. 그런데 2009년에 요하네스 파우슈와 슈테펜 포스에 의해 발견되면서 중요한 리코더 레퍼토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악보는 뉴욕 공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알로이스 토마스 라이몬트 하라흐 백작의 컬렉션에 들어있었는데, 하라흐 백작은 오스트리아 카를 6세 시대에 오스트리아의 선두적인 외교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중앙부에서 근무했을 때 파슈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이 곡을 의뢰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라흐 백작은 나폴리에 있었을 때도 레오나르도 레오, 요한 아돌프 하세 등 나폴리의 거장들에게도 곡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파슈의 작품을 포함하여 모두 매우 어려운 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자신이 뛰어난 리코더 연주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전형적인 이탈리아 협주곡 양식이지만, 음악적 내용은 바흐로부터의 유산이 강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악장은 바흐의 <마태수난곡>의 소프라노 아리아 '나의 구원자는 사랑을 위해 죽고자 하네'를, 3악장의 리코르넬로는 칸타타 <사랑하는 하나님여, 저는 언제 죽게 됩니까?, BWV8>의 베이스 아리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본의 아니게 모두 죽음을 소재로 하는 곡들인데, 어쩌면 이 곡은 죽음에 대한 파슈의 생각을 담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 5. 고든 제이콥 /
출처 : www.oocities.org

❖ 고든 제이콥 Gordon Jacob (1895~1984)

변주곡 Variations (1963)

18세기 후반 고전시대를 지나면서 자취를 감췄던 리코더가 부활하다! 영국 작곡가 고든 제이콥은 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작곡가로서 리코더를 바로크 이전의 옛 음악에 한정된 악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그의 음악은 리코더가 현대의 현악기나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고음악 스타일이 아닌 근대 음악의 모습을 띠니다. 이것은 옛 악기의 재현이 아닌 진정한 악기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며, 제이콥의 시도는 리코더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악기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변주곡>은 소프라노 리코더와 하프시코드 혹은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고음악의 선구자인 칼 돌메치와 조셉 색스비가 30년 동안 함께 연주해온 것을 기념하여 그들을 위해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느리고 간단한 주제 선율이 주어져 시작합니다. 이 선율에는 본 윌리엄스를 연상케 하는 영국의 토속적인 특징이 엿보입니다. 이후 10개의 다양한 변주곡이 이어집니다.



✧ 윤이상 Isang Yun (1917~1995)

중국 그림 Chinesische Bilder (1993)

윤이상은 한국전통 아악의 독특한 제스처를 서양악기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연주기법을 개발했으며, 음양 사상 등의 동양철학을 음악 형식에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윤이상은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의 완벽한 융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960년대 음향음악의 선구자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년에 이르러서는 미분음(이웃한 두 음정 사이의 음)과 글리산도(두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주법) 등 매우 제한적인 테크닉만으로 윤이상 특유의 제스처를 만들어 내어, 단순함 속에 배어있는 거장의 호흡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반주 리코더를 위한 <중국 그림>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만년의 걸작입니다. 이 곡은 어린 시절 집에 걸려있던 네 점의 동양화를 떠올리며, 그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곡을 초연했던 발터 판 하우베는 네 악장 각각에 맞는 리코더를 제안했습니다. 1악장 '전원의 방문자'는 테너 리코더, 2악장 '물가의 현자'는 베이스 리코더, 3악장 '원숭이 재주꾼'은 소프라노 리코더, 4악장 '목동의 피리'는 알토 리코더. 하지만 이것은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음역과 음색, 그리고 리듬과 각종 제스처 등으로 각 그림에 대한 음악적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6. 윤이상 / 출처 : www.nmz.de

✧ 모리츠 에거트 Moritz Eggert (*1965)

숨 쉬지 말고 Ausser Atem (1994)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모리츠 에거트는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프랑크푸르트와 뮌헨에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1991년에는 '젊은 작곡가의 새로운 음악을 위한 아데반게르데 축제'(A*DEvangerde Festival)를 만드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입니다. 1994년 작품인 <숨 쉬지 말고>는 두 개의 리코더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리코더를 동시에 연주하는 방식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기법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오직 연주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응축된 형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굉장한 호흡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전자음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특히 독주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리코더와 알토 리코더, 그리고 르네상스 알토 리코더를 모두 사용합니다. 우선 소프라노 리코더로 빠른 트레몰로와 유사한 사운드로 연주되다가 고음의 날카로운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로 허밍으로 노래도 합니다! 이 세 유형은 작품 전체를 통해 등장하죠. 그리고 마치 고대의 악기 '아울로스'처럼 두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진기 명기를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독특한 연주 동작들이 등장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



그림 7. 모리츠 에거트 / 출처 : www.ysce.eu